

2020년 9월 13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주일예배를 가정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상기도 하겠습니다.

◎ 목상기도(인도자는 시편 37편 18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시편 37편 18절)

◎ 찬 송 / 342장(통395) 너 시험을 당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에베소서 6장 13~17절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 말씀선포 / 전신갑주 06 -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 복음이 평안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위한 갑주로서의 복음의 용도는 군인에게 평안한 신발이 주는 유익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사실 복음의 의미는 강조하는 바에 따라 여러 가지로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영광의 복음, 생명의 복음 등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안의 복음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복음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 복음이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가리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생애 전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려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포함하며 예수님께서 생애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한 사랑, 믿음, 구원, 언약 등 우리가 은혜로 누리는 것들도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의 정의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으로 보게 되면,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기록들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넓게 본 복음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 성경을 포함한 성경 전체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또 복음에 대한 의미의 영역을 축소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담긴 내용들로 한정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음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원과 선교에 적용하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바로 이 모든 것이 복음이요, 복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도에 관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고 이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며, 축복의 길임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분명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의 방법이라면 이제 구원 받은 성도들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을 뛰어넘어 다양한 의미의 복음을 이해하고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분명 성도에게는 십자가 이외에도 복음이 전달하는 의미는 다양하며 그렇기에 성도는 복음의 다양한 의미를 잘 이해해서 필요한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영광의 복음을 언급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고 했습니다. 이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바른 교훈에 서는 데 유익한 복음을 증거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언급하는 평안의 복음은 전신 갑주의 하나로서, 마귀의 간계를 이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는데 유익한 복음으로서의 정의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갑주로서의 평안의 복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실천적인 교훈 및 선교적인 원리로서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 첫째, 복음이 있는 곳에 평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 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여 주셨다는 것이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며 영원한 천국의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십자가 복음만 강조하니 우리의 삶은 고난이요 수고라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고난과 수고를 담당하셔서 우리로 견디게 하시고, 쉬게 하시며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 또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하였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고 하셨습니다. 평안하고 좋은 신을 신고 걷는 길은 그 길이 어떠하던지 받은 편안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복음이 온전히 작동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을 수행할 때에, 진실하고 의로운 성도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곧 신발의 상징적 의미인 “이끄심” 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둘째, 평안의 복음은 성도들이 영적전투의 현장에 견고하게 서 있게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에서 “서다.” 는 네 개의 갑주를 입는 동작과 인과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허리띠를 동이고, 호심경을 붙이고, 신발을 신는 결과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서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간계는 이렇게 전신 갑주를 입고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 셋째, 평안의 복음에는 선교적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에는 힘이 있고, 또한 그 걸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편안한 신발을 신고,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걸아가야 할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좁은 길이요 험악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요 이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의 신을 신은 자들은 그 험악한 십자가의 길을 갈지라도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길이 좋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복음의 신을 신은 자의 걸어가는 길은 은혜의 길이요 생명이 살고, 회복되며,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 됩니다. 또 평안의 복음은 평안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복음이 어떤 특정 지역에 전해질 때에는 이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그 지역을 위한 평안의 사람이 되어 선교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갈지를 걱정하지 말고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한 주간도 그 어떠한 길을 걸어가더라도 비록 우리의 길이 험악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준비한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으로 살아가 회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36장(통383) 환난과 핍박 중에도

◎ 폐 회 / 주기도문